

임상 지도자 강습을 받고

望心病院 金 英 子

講習을 마친 所感이 무엇이냐는 質問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機會를 통해서 첫째, 나 自身과 내 存在의 位置를 發見했습니다. 내가 看護員이기에 社會 指導者로서의 높은 位置에 있다는 것과 看護員이 갖는 知性과 倫理觀은 自己의 모든 것이 곧 인류의 健康과 安寧을 爲하여 최대한으로 바쳐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位置를 생각해 보면 흐뭇한 自負心과 높은 矜持를 가지고 나의 業務를 對해야겠다고 재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創造된 은 宇宙萬物 全體의 모든것들 중에서 가장 祝福받고 오직 選擇되어진 人間, 그중에서도 가장 所重한 生命에 關係되는 健康回復, 疾病豫防, 보다 나은 安寧保存이 바로 看護員의 一員인 나의 目的이요 使命임을 재삼 確信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의 나의 特權과 責任의 重要性을 배웠습니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健康은 우리를 社會生活와 自我實現에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개의 境遇 우리는 自身이 健康할 때에는 別로 느끼지 못하거나 전혀 의식조차 못한채 지내다가 이미 健康을 回復하기에 상당한 힘이 들거나 回復이 거의 不可能한 때에야 비로서 重要性을 절실히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健康安寧하고 幸福하게 그들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바쳐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健康의 重要性을 재삼 깨달아 미리미리 무서운 不幸의 씨를 없애기 爲해 여러 方法으로 努力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健康한 몸을 지니고, 그들 健康한 몸에서 健康한 精神이 나오고, 健康한 精神에서 偉大한 精神의 創造를 期待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줄 特權과 責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사람으로

造成되고 그중에서 특히 看護員이 된 것을 재삼 재삼 感謝롭게 생각하는 바이며 同時에 나의 職務가 참으로 偉大하고 보람된 소임이라 생각됩니다.

셋째로, 돌이켜 보면 나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 질을 느낍니다. 양쪽귀 꼭 막고 두 눈을 감은채 두 손을 힘껏 벌려 내얼을 파묻고 싶어 집니다. 이유는 지나온 나의 발자국들이 너무나 不誠實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더욱 나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것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이기에 어떻게 고쳐볼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좋고 有益한 職務를 갖고도 어쩌면 그다지도 不誠實했었는지? 徹底히 지나가버린 모든 時間, 모든 環境이 한없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또다시 勇氣를 내어 주먹을 쥘수 있음은 아직까지 나에게 現在라는 것이 許容되어 과거를 씻을 수 있고 매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를 보았고 또 내일도 해가 뜰 것이기에 勇氣내어 決心을 새롭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째, 이제 앞으로는 每事 每瞬間을 後悔없이 一回限으로 失敗없는 忠實한 生活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繼續 努力하고 研究하고 많은 冊을 읽어야 겠다고 생각됩니다. 급속히 변천해 가는 歷史의 흐름을 배워야겠고, 高度로 發達해 가는 여러 學文들에 뒤지지 않는 나의 職務가 되기 위함과, 또한 나의 職務를 邁하여 내게 맡겨진 모든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름든 이를 위해서는 繼續 研究 努力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러 先生님들께 眞心에서의 感謝를 드리며 아울러 看護協會 會員과 協會에 恒常 하느님의 加護하심이 함께 있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